
5 분 자 유 발 언

- 당항포대첩 승전 기념일,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고성군의회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인

당항포대첩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흔들리는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왜선 57척을 모조리 수장시킨 당항포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주도면밀한 전략이 돋보이는

독보적인 승전지이자

우리 고성군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의 날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그리고 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당항포대첩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영의 한산대첩이나 해남의 명량대첩이
역사적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고
그 정통성을 브랜드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고성의 현실은 실로 뼈아픈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당항포대첩의 1차 승전일은
1592년 음력 6월 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7월 13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항포대첩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당항포대첩 첫 승전 기념일인

'7월 13일'을 중심으로
행사 개최 시기의 역사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더위나 장마 등 현실적인 여건상,
기념일 당일에 대규모 축제를 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상 상황이나 주말을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축제 시기를 4~5월로 변경한 것은
유연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양력 4월 23일 경인
2차 당항포대첩 승전일도
소중한 역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항포대첩'이라 칭하며
수십 년간 군민의 자부심으로 기려온

그 구국의 첫 승전일은 엄연히 7월 13일입니다.
행사의 편의성을 이유로
가장 상징적인 1차 승전일을 뒤로하고,
축제하기 좋은 봄날을 찾아
2차 승전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입니다.

적어도 '7월은 당항포대첩의 달'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7월 13일을 기점으로
전후 가까운 시일 내에 행사를 치르는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승전의 서사가 담긴
역사 콘텐츠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축제에는 승전기념 대동마당,
병영 체험, 역사 토크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개별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들이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항포에 가면 승전의 역사가 보인다'는
말이 나오도록 역사 콘텐츠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념일이 되면 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7월 13일은 우리 고성이 승리한 날"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방식을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브랜딩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날짜가 고정되어야 전국의 관광객들이

그 시기를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집행부는 즉시 승전 기념일 지정과

운영 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7월 13일이 고성군민의 공지가 되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